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선생님 명설교(편집본) /1997.10.19.
*사회자가 성경 봉독 꼭 할 것!!!!
* 신입생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 언급할 것

그(He)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멘송'을 만들었습니다. '아 아 아멘' 이 노래 만들어 놓았는데, 씨디도 나왔지요? 복잡한 것은 싫고 이제 '할렐루야'를 가지고 또 만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렐루 렐루 렐루 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래 안 할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래 안 할래? 할렐루야"

내가 노래를 개사하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면 많이 나옵니다.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원리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노래는 어떻게 작사하는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 됩니다. 지가 풍금 위에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안에서 치지 다른 것을 치겠습니까? 그것을 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래 불러서 올라가기 힘들면, 밑의 것을 때리고. 자신이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위의 것을 때리면 그냥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또 지으려고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오와 여호와 여호-와 여 호 오 와 ~ 여'

그리고 끝에 ‘아멘’을 끝에 붙이면 됩니다.
‘아 ~ 멘 아 아 아 아 아 아 ~ 멘’

아멘 노래를 내가 하면 더 멋있게 합니다. 원래 그렇게 안 하면 붓 점을 넣어야 됩니다.
‘아 - 아 - 아 -멘 아 아 멘 아아~멘 아아~멘 아멘 아아멘 아아아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 -- 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아아멘 아멘 아아아아 ~~~~멘-’
이렇게 원래, 원래 아멘도 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멘 할 때 이 곡은 가정단위로 만들려고 합니다.
새끼, 막내, 둘째 놈, 셋째 놈, 이렇게 해서
“첫째 애기!”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할아버지!” 하면 “아멘 아멘 아아아아멘 아~ 아~ 아~멘”
이렇게 해서 한 가족 아멘 단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멘~~”
며느리는 “아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2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가족>이란 그런 곡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바빠서 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이제 할렐루야도 만들고 그럴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이 숙달되면 어려운 곡을 만들 것입니다. 대개 어떻게 하라는 원리는 받았습니다.
내가 전국 순회 다니며 차 타고 다닐 때 많이 지어 놨는데 옆에서 녹음기를 안 대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다른 곡을 피해서 노래를 못 짓겠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8000곡이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 보면 넘 곡이 흘러나옵니다. 많이 하다보면 비슷한 곡이 나옵니다. 피해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가사만 다르면 됩니다. 곡은 다 있으니까. 곡은 어디 가도 세계 각 나라의 그

곡 안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는 빠져 나갈 수 있는데 무려 한 3000 5000이 넘으면 거기를 못 빠져 나갑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사하고 노래 짓고 그러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글쎄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예배 말씀이 나간 다음에 다시 쉬었다가 신입생을 위한 말씀으로 2차 할 것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는 이상세계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 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들어서 말씀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입생들, 천국이 되려면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천국이 되려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첫째로 무엇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갖춰져야 할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첫째 무엇이 갖춰져야 되겠습니까? 신입생들? 오늘 서울에서 내려온 신입생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씀이 갖춰져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또? 잘 모르겠지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단계와 또 다릅니다.

쉽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시대의 천국이 나름대로 이루어진 시대를 보면
'천국'이 이루어질 때 첫째는 <메시아>가 없이는 천국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일단 땅에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천국 이야기를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이란 것은, 첫째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시킬 자가 나타날 때에 천국이 첫 번째로 필연적으로써, 필연적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 골짜기에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안 만듭니다. 그동안 150년 동안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다르게 만들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아마 팔지 않는 이상 영원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팔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팝니다.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팝니다. 이제 값이 없는 곳입니다. 10000억을 준다고 해도 여기는 안 팝니다. 이 장소는 안 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팔 수 없잖아요. 자기 아들은 팔지 몰라도, 자기 아내는 팔지 몰라도 여기는 안 팝니다. 영원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해 버립니다. 선생님이, 주인공이 들어왔잖아요. 주인공이 들어와야 여기가 이상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 땅만 산다고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에 땅 임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은 농사짓는 주인들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까? 멀리서 차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왔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가야지요.

말씀을 잘 들으면 차 사고도 안 납니다. 날 리가 만무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가는데 차사고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수한 전에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가면 수한 전에 죽을 리가 만무합니다.

알겠습니까. 위대한 하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월남에서 그렇게 38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루도 내가 쉰 날이 없습니다. 계속 작전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한 세계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음성이 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들도 똑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요? 우리 아버님도 87세였는데도 더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더 살고 싶겠지요. 엄청나게.

이런 것이 없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면 더 살고 싶지요. 맨날 싸움이나 그러면 괴로우니까 얼른 죽고 싶지요. 자살하고 싶고.

그러나 더 좋은 세계가 있고 이상적인 세계가 있으면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여기에 오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집을 뜨면, 문전 밖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차도 위험하고, 쓰리꾼들, 강도놈들, 인신매매인들, 전부 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수(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집에까지 잘 가게 하려면, 내게는 특별한 교육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신(神)중의 신이 되시고, 주권자

와 권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운을 타고서, 생명의 천운을 타고서 그야말로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는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그렇습니다. 나는 표상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표상의 인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전국에 230개 교회가 있는데 한 도시에서 몇 명씩 왔습니다.

완도에서 누구누구 왔습니까? 완도, 왔습니까? 보십시오. 완도에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도시에서 한 명도 안 온 것입니다. 안 왔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교회에서 몇 명씩 왔더라도 말씀을 신입생들에게 넣어주자. 그들이 가서 소문을 퍼뜨려도 크니까." 했습니다.

"야, 바짝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너도 언젠가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더라. 직접, 말씀을!"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가르치지는 못하고 이런 말씀을 대신 할지는 없을지라도, 기도해 주고 말씀을 들으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런 시간을 특별히 갖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겸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한 것이 가장 위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만 만일에 온 인류가 나를 깨달았는데 내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해 보십시오. 아마 목탁을 치던 사람도 올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올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나?" 하고서 올 것입니다. 상투를 꼽은 유교의 사람들도 무지하게 올 것입니다. "정말인가?" 하고. "어떻게 생겼나?" 하고. 우선 생긴 것을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세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세나 천국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들어보러 오면 아마 여기는 바늘로 찌를 구멍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신입생들에게 하신 말씀)... 그 사람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외치고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여러분들만...(신입생들만 왔습니다.) 나를 깨닫고 있는 자들을 다 오라고 하면, 나를 깨달은 사람들 세계적으로 다 오라고 하면 아마 바늘은 들어가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불러서, 소단위로 불러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요 밑의 사람들, 친하게 지내며 일하러 다니고 같이 놀고먹고, 같이 했던 가까운 이웃 사람들...

우리 윗집을 보십시오. 맨날 같이 나무하러 다니고 떡 나누어 먹고 서로 좋아하고, 아래윗집 서로 사돈과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진짜 마귀를 못 당한다. 귀신을 못 당한다. 그것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흑암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일생동안 찾아 봐. 이 시대 구원을 받나. 못 찾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 사고입니다. 내가, 이 지식자가 말을 전하는데, 잠언의 총명이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총명이 무엇이냐? 총명이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자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총명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철학 강의 하는 것을 들어 보았을 텐데, 철학 강의를 듣고 왜 인

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 훌륭한 학자들의 말씀을 듣고, 왜 너희들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도 인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했다고 했는데, 내가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은 달다고 하고,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아멘! 좋다."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을 먹으면서 "참 먹을 만하다. 참 들을만한 말씀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보십시오.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2300독씩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10의 10조를 다 한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누가 십의 십조를 했습니까. 십의 십조를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십의 십조를 하면 생활비까지 다 바치게 돼서 살 수가 없는데! 월남에 갔다 와서 번 것을 싹 바쳤습니다. 하나도 없이 싹 바쳤습니다.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만 명씩 전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어제 앨범을 보니까 내가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그냥 금방 7-8 명씩 갖다 놓고 죽 가르친 것이 있었습니다. 10씩 15명씩. 아주 도사였습니다. 완전히 신이었습니다.

하루에 7-8명씩, 10명씩 쫙쫙 해 놓고 하니까 1년이면 만 명씩 이렇게 했

습니다. 데려다 놓을 곳이 없으니까 각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는 거지마다 전부 데려다가 밥을 먹여 주고, 내가 동냥을 해다 거지에게 주면서 성인의 삶을, 성자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못 합니다.

온 세계의 일부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월명동은 아침 금식입니다. 밥을 안 했습니다. 먹기 전에, 입기 전에 기도 먼저! 아침 기도!

"너희들이 와서 정말 내 설교를 기다리면 내가 나오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하지 마. 너희들의 일생 가운데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의 설교는 아무도 몰라. 나는 그런 조건을 세워 놓았다.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마. 내가 안 나오면 너희들은 일생동안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내 설교 한 번을 못 듣고 죽는다. 그렇게 내 설교가 귀하다."

글을 써도, 여기서 내가 붓글씨를 한번 딱 쓰고 1억을 달라고 해도 자기가 안 사가고 배깁니까? 일생에 한 장을 만든다는데 안 사갑니까? 아마 외상으로라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에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값도 없는 어마어마한, 값으로 지출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생명과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내가 세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올 때 모든 전초를 해 가지고 와라."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꾀죄죄하게 생겼어도 그것이 아닙니다. 나, 귀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10분 20분의 시간을 그냥 보통으로 까먹는데, 나는 10분 20분을 가지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전화를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루아침에 70통씩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70통씩 탁탁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70통씩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초창기 멤버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영동교회(영동지

하,삼성동)에 있을 때, 영동지하에 있을 때, 영동 마리아 집에 있을 때 항상 내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팔 밑에 뭘 받쳐 놓고. 항상! 왜? 말씀을 전해 주려고!

그때는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말씀을 꼭꼭 그날그날.

"오늘은 절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다. 의심하지 말라. 혹시. 나 의심하지 말고, 나도 너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끊어. 아멘."

"아멘!!" 하고 딱 끊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멘, 같이 일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탁탁 되어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의심하고 살라고 하신다. 절대 의심을 하란다. 오늘은"

그렇게 하면서 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너는 5시 1분부터 3분까지, 너는 5시 3분부터 6분까지" 이렇게 전화 순서, 개인 시간을 딱 주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딱딱 맞았습니다.

첫째는 결혼하고서 사랑 이상세계가 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에게는. (이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집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옳은 말 하는 것을 제쳐놓고 첫째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는 지구상에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천국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방에 글씨 써 놓은 게 있어. 그것 가지고 와 봐. 내 글씨.)

두 번째는, 온전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진리 속에는 천국이 안 되고,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될 것!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모이면 한 명 천국, 두 명이 모이면 두 명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신입생들, 아멘!"

열심히 하십시오. 진짜 감격하면서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온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못 와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물 떠다 주는 예쁜 천사들만 해도 지구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를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나무 갖다 심지, 누가 요런 나무를 갖다 심습니까. 언제 빛을 보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부른 것을! 그럼!
이 순간은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이란, 요 시간만 잠깐이 아니라 선생님이 와서 섭리를 펴고 가는 시간이 잠깐입니다. 완전히 도둑같이 왔다가 버뜩 바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회골에서 보리 짐을 앞산만 하게 짊어지고 산허리를 휘영청 감아 돌며 힘센 장수처럼 넘어오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7세를 다 살고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기보다는 인생 80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 끝나버렸군요. 내가 다행스럽게 아버지의 구원을 책임졌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심은바 되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벌써 거듭나서 돌아다니십니다. 그것은 벌써 영적으로 휴거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시범적으로 휴거돼서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아무 때든지 나는 얘기합니다.

영계에 대해 무식한 자들은 인간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줄 알지만, 그것은 무식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을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세탁기 밑에 손을 들이대지 말 것! 감전되어 죽었음! 세탁기 밑에 손 넣기 쉽잖아요. 감전되어 죽습니다. 특히 샤워장에 있는 세탁기. 절대 손을 넣지 마세요! 감전되어 죽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가 더위를 먹어서 익모초를 먹이는데 익모초가 쓰다고 설탕을 타서 주었더니 손자가 쭉 뻗어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밭 매다가 와서 “아기 보기 싫으면 그냥 말지,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내 한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며 막 저주스럽다고 했더니만, 보건소에 일렀더니 보건소에서 쫓아와서 “무엇을 먹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먹였다. 그것 먹고 죽었으면 또 죽나 한번 먹어보자.” 해서 할머니가 먹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의 모가지가 다 잘렸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서 다 죽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상식입니다.

극과 극, 쓴 것에다 단 것을 타면 극과 극인데 커피는 덜하지만 극과 극입니다.

계란에다 우유 타서 먹으면 부작용! 영양흡수 되면 설사, 곽란, 죽음까지 초래해서 인간에게 해를 줍니다. 계란에다 우유를 넣으면 응고되기 때문에 굳어 버립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손해 갑니다.

아무리 더워도 여자가 노팬티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면 종교를 벗어난 비웃음거리가 되는 때가 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까막눈이니까 압니까? 모릅니다. 개나 팬티를 안 입고 다니는 것이지, 다 입어야 됩니다. 개도 안 보여 주려고 쪼그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상식!

또 이야기해 줄까요? 아무리 급하지만 개꼬리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이빨이 없어도 자기 꼬리를 밝으면 기어이 물어 흔들고 맙니다.

개꼬리는 밟지 마십시오. 등허리는 툭 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귀때기를 잡으면 “깨갱 깨갱” 합니다.

그러나 꼬리는 모든 식별의 표상입니다. 반가우면 꼬리를 칩니다. 꼬리를 잡으면 징글징글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아마 하반신이 쑤시고 아픈가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술 밥을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 술 밥 덜 먹고 품돈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받으십시오.

여기도 찍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거든 믿어요!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어제 아침에 조금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중에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찍어보면 나올 것입니다. 안 나오면 또 찍어봐야지요. 작은 것은 안 나오니까.

내가 암을 보는 데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는 10년 뒤에 나올 암까지 알아보는데, 그가 의사입니까? 신입니다!

나는 인간의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것까지 찾아내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암이 생기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약 6개월 만에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요 자리에서 생기겠다.” 했는데 6개월 있다가 그 자리에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잘 봅니다. 영감으로만 보는 것이지, 육계로는 분석하는 기계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따르는 애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아니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선생님, 저는 위가 헐어 위염이 생겼습니다.”

“야, 임마. 네가 나를 누군지 아는데 내가 너를 죽게 두겠냐? 생각해 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고칠 수 있다. 밥 한 술 덜 먹고 기도를 하지.”

그래서 위를 고쳤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대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쳐도, 안 고쳐져도 죽어도 원한이 없음. 내가 고무신짝을 떠내려 보낸다고 할지라도 강에서 못 건지면 바다에 쫓아가 건지면 됩니다. 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육계에서 못 건지면 영이라도 건져 놓을 테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잘난 체 하지 말 것! 상식입니다. 떨어지면 골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높은 직이나, 높은 벼슬이나,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잘난 체하지 말라! 떨

어지면 골 깨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상식으로 알아라.” 하셨습니다.

“자기만 몽땅 잘난 체 말아라. 지극히 못난 놈도 잘난 놈 못 난 데보다 나은 것이 있으니까. 사그리 무시하지 말라. 상식이니라.”

열두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더 해 줄까요?

“트럭 뒤에서 소변보지 말라. 게다가 여유 있다고 실례까지 하지 말 것! 상식이다. 차 떠나면 골망신을 당한다. 차가 후진을 하면 실례하다가 죽는다.” (웃음)
맞지요? 맞습니다. 왜 알면서도 합니까?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는 “지게 짐을 받쳐놓고 지게 밑에 앉아서 쉬지 말라. 작대기가 미끄러지면 자기 지게에 치어 죽는다.” 고 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지게 짐 받쳐놓고 거기가 시원하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좀 비껴서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작대기가 쭉 미끄러지면 니가 죽게 지고 온 짐에 쳐 죽잖아. 내가 몇 번 보았다. 돌짐 같은 것은 특히 무섭다. 거기에 앉는 법이 아니다. 암만 땡볕에 낯짝을 그슬려도 거기 가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리 짐 같으면 버리적 거리고 나오겠는데, 돌짐 같은 것에 깔리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뭇짐 밑에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한번은 감람산에서 윗집의 집사님과 둘이서 나무를 쩍지게 해 놓고, 홍래 집사님이 그 밑에서 쉬는데 작대기가 쓱 미끄러졌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같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붙잡냐. 넘어가면 말지, 까짓 거.”
그래서 반쯤 뒹굴어 갔는데 그날 안 죽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다가 기어이 어디 건물 짓는 데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지금은 여덟 달째인가 아홉 달째인가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80%이상이 사고가 안 날 것인데 나고, 죽고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상식입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부엌 가스 불에 끓일 것을 올려놓고 '이것을 다 끓이려면 몇 시간 걸린다.' 고 하면서 시장에 가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 금방 끓습니다. 금방 끓고 졸아붙어 금방 불이 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일이백 명이 아닙니다. 일이백 집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꼭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지킬 때까지 쳐다보아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까마귀가 집 앞에서 울어 대끼면 얼른 기도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불길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치가 유난히 울어 대끼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것이니, 유난히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맞이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까치가 그렇게 울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육인체 아니면 영인체 둘 중에 하나가 꼭 수한 전에 죽습니다.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이게 상식 잠언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덥다고 목을 창밖으로 내놓고 장 구경을 하지 마십시오. 모가지 내 놓고 장 구경하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버스에 모가지가 긁히면 어디에서 땜질을 합니까.
어떤 시골 노인은 구경을 한다고 버스 밖으로 모가지를 내밀고 있다가 주먹 하나 사이의 상대방 버스 안으로 모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상식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버스가 달릴 때 얼마나 무섭게 달립니까. 그냥 툭 치고 지나갑니다.

버스를 탈 때 사람이 반드시 인도 위에 있어야지, 내려가서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거기에 내려가 있다가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 학생 발등을 싹 치니까 우두둑 하면서 납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끝난 것입니다.

신호등이 파란신호로 들어왔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빨리 먼저 들어가지 마십시오. 중간쯤이 좋습니다. 끄트머리는 위험합니다. 성급한 운전사들이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지나가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천동에 있을 때 본 일입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아가씨 같았는데, 한참 파란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첫 번째로 막 뛰어 나갔습니다. 바로 앞의 차는 섰는데 그 다음다음의 봉고가 그 아가씨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다가 그 아가씨를 탁 쳤습니다. 순간 그 아가씨는 차에 치여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봉고는 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내가 봤는데 빨라서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일어나서 “아, 나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된 것이죠? 누가 나를 부딪쳤죠?” 하면서 걸어가더니만 나중에는 딱 쓰러졌습니다. 마침 경찰차가 옆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봉천동 고개 올라가는 길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 봉고차는 사업하는 사람의 차였습니다. 대개 사업하는 차가 그렇게 빨리 갑니다. 절대로 앞에 가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외치게 하십니다. 이런 상식들이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밤중 길에는 차가 안 보이니까 잘 다녀야 됩니다. 이런 상식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도 그런 상식적인 일들 가운데 엄청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못 지킬 때 손모가지가 나가고 발모가지가 나가고 허벅지를 끊어야 되고 배를 갈라야 하고 수한 대로 못 살게 되고 꼬부라지게 되고 엎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체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인의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나이가 50-55세이신 분이 있지요? 나같이 젊고 팽팽합니까? 나처럼 볼을 차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면 "아이구, 시키는 대로 다할 테니 나 좀 붙잡아 줘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건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으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그것을 다 감당하려면 웬만한 체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세계 22개국의 섭리 나라를 가꾸면서 생명을 돌보는 것은 1초도 다른 곳에 신경을 못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곳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습니까? 어림반푼어치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재벌가라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도와 줄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됩니다.

마음 좋은 사람이 뿔따구가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인군자가 화가 나면 그것을 못 돌이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신입생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해줍니다. 배고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기로 내려가서 빵 하나씩만 사 줘도 한 달 이상은 먹을 것입니다. 내 방에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안 먹고 있습니다. 내가 산에서 기도하던 것 생각하면, 아까 산에서 보았지만 내가 저기 올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내가 전망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못 올라갔으니까 못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못 보았을 것입니다. 요새는 그렇게 바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도 바쁩니다.

아까 거기서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서, 기도한 장소다. 저기서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눈물겹게 하늘 앞에 조건을 세우고 온 것이다. 말로 해서 한마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조건을 세워도 힘든데 일생을 조건을 세우다시피 하고 나와서 흑암을 물리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생이 되어 주고, 너희들을 구원을 시키며 이 역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너희들에게 바칠 테니 나를 구원시켜 봐. 한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못 하는 것을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흐리멍덩하게 하게 되면 이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죄악을 회개하도록 하라. 주께서 받으시리라. 회개치 않은 자는 그가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부모 같고, 아무리 선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엄격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고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려면!

구원파? 구원받은 줄 압니까? 어떻게 답안지를 못 썼는데 합격됩니까? 이 세상은 비원리로 뒤에서 돈을 넣고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세주도 그것은 안 통합니다. 원리원칙입니다.

예수님도 원리원칙으로 전부다 나갔습니다. 무섭게 원리원칙을 지키며 나갔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답안지를 제대로 안 썼는데, 한 문제에 25점인데 4문제 다 틀렸는데 어떻게 합격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원리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었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알지만 신입생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마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으로 뒤바꿈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곳의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확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완전히 논 수렁탕이고, 앞산과 뒷산이 모두 집 바로 앞에까지 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운동장의 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전부다 산이었는데, 산인데 밭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동나무를 심어서 꽉 절어 있었습니다.

앞산 뒷산이 거의 닿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돌을 갖다 살짝 던져도 앞산에 닿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때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곳은 자리 잡을 곳이 못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다른 데로 가려고 했습니다. 암만 봐도 자리 잡을 곳이 못 되었습니다.

잔디밭도 흙을 옮겨다 다 채웠습니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진수렁탕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물을 다 빼고 흙을 채워서 잔디를 살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장마가 되면 잔디가 뜹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이 앞산도 아주 독사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산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천하에 못 된 나무들만 다 절어 있어서 그냥 조져놨습니다. 홀랑 껍질을 벗기고 다시 심은 것입니다. 소나무도 없었습니다.

뒷동산의 나무도 조그마했는데 10년 이상을 비료 주면서 가꾸어서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야 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전설이 어린 곳이었습니다. 암만 전설이 어리면 뭐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전설이 어린 것이 표가 나서 '아 정말 이곳이 전설이 어린 곳이구나. 전설이 어리고 전설의 실질적인 땅이 되고 말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사람이 구름 떼같이 온다했습니다. 구름떼같이 와서 여기서 한 지도자를 만나서 온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구름떼같이 오잖아요. 오늘은 구름의 한쪽만큼 온 것입니다.

먼저 체육대회 때는 이곳이 다 꽉 찼습니다. 나는 이 골짜기에 살아서 압니다. 우리 어머니나 형제들은 이 골짜기에 살았으니까 다 압니다. 변화되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숨겨 놓고 합니다. 절대로 숨깁니다. 부모 몰래 연애를 하듯이 숨겨 버립니다. 절대로 숨깁니다. 아기가 클 때까지 뱃속에 숨겨 놓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보려고 뒤집어 보면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숨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집터는 앞산이 딱 가로 막아야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숨겨야 되기 때문에! 앞산이 가까울수록 빨리 출세합니다.

나는 34살 때 별을 달았습니다. 하늘의 사명의 별을 달은 것입니다. 서른네 살 때가 얼마나 어린 때입니까. 그때 벌써 사명을 알고서 빵빵 거렸습니다.

34살 때 하늘의 사명을 깨닫고 성서의 프로그램을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야 행할 것이 무엇무엇 있나 그것을 깨닫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일찍 일어났는데 육적으로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산이 가로막혀야 온화하고, 또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돌이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돌이나 나무가 그 집에서는 훤히 보이면서도 살짝 가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 밑의 왕바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집터에서는 환히 보입니다.

그리고 묘 터는 앞이 확 터져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 터처럼 확 터져야 됩니다.

집터나 묘 터나 뒤에는 산맥이 올라가야 후손이 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되지 않습니까? 뒷동산의 맥이 백두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끊어진 곳이 연속 갔습니다.

나는 풍수지리도 누구만치 잘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나만치

알 자가 없습니다. 데리고 와 보십시오. 육관대사를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는 내가 새 발의 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 준 것이 있습니다. 육관대사가 정말로 잘 보았다면 벌써 이 땅을 샀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 놓은 장소입니다. 내가 맞는데 어쩔 것입니까? 내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가 나는 장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맞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확 빨려 듭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쫙쫙.

다 압니다. 말씀으로 다 오니까! 이 골짜기에 좋은 묏자리가 있다고 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고 결국 내가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묘 자리! 그것은 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했습니다. “맞다. 그 자리다.”

도대체 사람이 찾을 곳이 못 됩니다. 산 임자도 거기를 못 찾았습니다. 산 주인도 그곳에 묘를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썼습니다.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거기 가야 압니다. 거기 가서 작업을 해 놓고 묘를 써야 안다는 것입니다. 묘를 써 놓아야 그때 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르는 땅입니다. 묘를 써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묘를 쓸 때까지도 모릅니다. 묘를 써봐야 압니다.

‘아~ 큰 사람은 도대체 하늘이 줘야 된다고 하더니만, 맞구나! 장소를.’

이렇게 해서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나도 모른다. 어디 장소인지. 내가 찍어 놓은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가 아니라고 웃을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너무 큰 것은 미리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까짓 것은 3초면 압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내가 점을 가장 잘 칩니다. 한번 나한테 물어 보십시오. 내가 해 놓을게. 맞나 안 맞나 보십

시오. 아무라도 여기 나와 보십시오. 내가 날짜를 댈 테니 그날 죽는지 안 죽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정확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틀린 날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를 먹기까지.

내가 국민학교 때 박태선 씨가 인기였는데, 그때 내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작은 형님을 올려 보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이게 감격할 일입니다.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형제끼리도 하나 얼굴 붉히지 않고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고 잘 치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수하니.

"형님, 우리 월명동에 큰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난다는 말을 형님에게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때 형님보고 하라고 하니까 형님이 안 한다고 하면서 나를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날 보고 니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형님이 내가 한다.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으면 나는 형님 밑에서 수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윗집에 살던 박주홍 목사님이, 그의 아버지 묘가 있잖아요. 아직 안 캐 갔습니다. 박주홍 목사님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동창들끼리 둘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뭐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와 본 것입니다. 자기와 합하려고. 자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분이 보은에서 교회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크게 하겠다 싶어 와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맞는 줄 알고 딴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 나는 교회가 20개 넘었을 때입니다. 자기보다 빨리 가고 있거든요. 앞에 가거든요. 자기가 1등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분명하게 말을 도끼로 찍듯이 팍팍 해버리거든요.

독수리 앞에 그까짓 거 멧새가 뭘 와서 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지요. 그랬더니 애들에게 하는 말이 "저 분이 할 사람이구나." 그러더랍니다.

그 후에 내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내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종교 지도자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 날이 그 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내가 들은 날과 그 분이 들은 날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 날이 그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뽑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만치만 끌고 가 보십시오. 요만치만 여러분들 맘대로 끌고 한번 가 보십시오. 따라 가나. 여자들 다섯 명도 못 끌고 다닙니다. 미인 다섯 명도 못 끌고 다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입니다. 가식으로 대하면 안 될 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말씀도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여러분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 쓰고 나타나서 말씀들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쓰고 나타나고, 나를 쓰고 나타나고, 집사를 쓰고 나타나고, 목사를 쓰고 나타나고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이곳저곳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버릇을 고치며 심판하시며,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때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이 시대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노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 복을 주시느니라. 내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였노라."

어때요? 말 같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미 너희가 묻기도 전에, 말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오고 있느니라."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저 기성 교회에 가서 사십시오. 믿습니까. 할렐루야!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이는 의심이 많은 자도 있더라. 더러는. 이로 인해서 더욱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계절, 가장 이상적인 그런 때에, 지금 때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해에 가장 이상적인.

구름이라고 끼었으면... 저녁노을이 설설 익기 시작하는 이때에 그저 천리나 보이는 맑은 하늘, 가을 풍치에 감이 주렁주렁, 고산 지역에 단풍은 지고, 야산지역에 단풍이 지는 계절을 딱 맞이했습니다.

대둔산 꼭대기에는 단풍이 다 졌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단풍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과 단풍놀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따라 다니려고 빨간 등산가방 메고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물론 단풍놀이를 한 놈은 했겠지요.

물론 “너 밥 먹었냐?” 하면

“뭘 조금 먹었어요.”

“입이 작아서 조금 먹었냐? 없어서 조금 먹었냐?”

“애, 밥 다 먹고 왔어요! 나랑 같이 먹었어요. 배가 볼록 하잖아요.”

이런 입장처럼 물론 다닌 사람이 있겠지만, 섭리 뛰느라 안 다닌 사람들은 이 가까운 곳에 하루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아까는 울적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울적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섭리를 뛰느라고 아직까지 등산배낭 하나도 못 샀습니다.

“등산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 나를 따라올 자가 있습니까? 한번 빨리 가기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산타기, 빨리 가기 해 보자구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산 하나 넘어가는 것, 2-3분이면 족합니다. 그것을 보고 싶으면 보여 줄 테니까 나에게 차 한 대 사 주십시오. 벤츠500을 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축지하는 법을

보여 주겠습니다. 지금 즉시 보여 주겠습니다. 지금 내가 해를 따라서 전주로 갈게요.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도, 열 네 살 때 쌀 8되를 짊어지고 여기서 떠나서 논산까지 갔습니다. 논산에 갔더니 해가 이만큼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논산까지 여기서 한번 걸어 가보십시오. 그곳까지 100리 이상이나 됩니다.

100리 이상 가려면 장년이 하루 종일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내가 그때 짐까지 짊어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14살 때였습니다. 우리 큰 형이 군대에 가 있을 때니까 큰 형이 21살 때였습니다. 큰 형과 작은 형이 3살 차이고, 작은 형과 내가 4살 차이니까 그때 내가 14살 때였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날아 다녔는데 지금은 코끼리 힘줄을 갖고 있는데 끝냅니다.

석막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증거하는데, “그 분이 축지는 꼭 한다. 확실히 한다. 봤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전도 다닐 때 여기서 번뜩, 저기서 번뜩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순전히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주세요.)

나 골프차를 타고 여기를 막 날아다닙니다. 그것이 축지법이라는 것입니다. 타는 사람은 무섭다고 다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나는 골프 카 속도를 35km까지 다 밟고 산 꼭대기까지 다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 두 개를 동시에 밟고 다니라고 했고 또 뛰어 내리는 것을 몇 번 훈련했습니다.

혼자 운전하다가 만약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뛰어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뛰어내릴 때 왼발로 브레이크를 팍 밟고 뛰어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차는 가다가 혼자서 딱 서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몇 번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특공대 출신인데! 이제 이곳을 1-2분이면 싹 돌고 옵니다.

나는 이것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제주도에 갔는데 내무부 장관 사모님이 교회에 나오는는데 자기 마당에서 서귀포 폭포와 한라산을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구름이 껴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라산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구름이 끼어있으니까 기분을 잡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고, 내가 남 덕 보나? 내 덕 보아야지. 내가 누구라고.' 하면서 '훅!' 하고 부니까 구름 가운데가 쭉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라산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같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다 날아가서 10분 동안 보고 사진을 찍은 후 "덮어. 그래야 내가 한 것을 알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구름을 덮지 않으면 내가 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름을 다시 덮어놓으니까 그때서야 "과연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 이것도 되는구나.' 하고서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가르마 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불어주겠습니다. (웃음)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야기할 때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애기를 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꼭 증인들을 갖다놓고 합니다. 혼자 하면 안 믿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해도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증인을 세웁니다. 만약에 몰라서 증인은 많이 세웁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증인을 많이 세웁니다.

내가 일본의 후지산에 갔습니다. 내가 그 산에 가서 후지다고 했습니다. 돌도 없고 나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일본 회원이 있기는 하지만 "후지산은 문자 그대로 후진 산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지산이 안개로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홀랑 벗겨지면 창피하다고 안 보였습니다.

"내놔 봐. 지금은 있는 대로 내 놓고 사는 때다. 말세 때에는 모든 것이 드

러난다고 했어. 내놔 봐.”

그러나 비가 오고 있어서 안 보였습니다. 사진은 찍어야 되는데 구름이 밑에까지, 허리까지 꽉 껴있어서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회원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제주도에서 하던 것이 생각난다. 일단 불어보자. 불어서 구름이 안 물러나면 뜻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어? 밑져야 본전이니까. 자, 같이 불자.” 하고 같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구름이 싹 물러났습니다. 그것을 일본 회원들이 봤습니다. 그때 내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 회원들이 그때부터 ‘아!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써먹는 사람은 지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불어대는 사람을 봅니다. 티끌도 불고 있습니다. 밥상 안의 티도 불고 다 불어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후지산의 구름이 훌랑 벗겨졌습니다. 일본 회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 회원이 나를 보면서 신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라 하나님께서 더 잘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위신을 세운 것 같지만 사실상 누구의 위신입니까? 내 위신을 세워 놓고 하나님의 위신을 세우려고 한 것을 뻔히 압니다.”

그리고 후지산을 싹 보이게 한 다음에 40분 동안 사진을 찍고 딱 끝나고 내려 올 때 완전히 구름이 꽉 끼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백두산에만 가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모처럼 평생 처음으로 여기 왔는데 구름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벗겨주세요.”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해 줍니다. 일반 사람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라도 들어주십니다. 꼴이 틀리면 제자라도 안 해 줍니다. 꼴이 틀리고 심정 상하면. 그러나 제자가 아닐지라도 뭔가 풀리면, 하나님이 풀리면 날씨가 풀려지듯 풀려집니다. 그냥

덤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기도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저들에 이르기까지 저 산 너머 이방 사람에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가 앎이니라."

그런데 '아 저들이 왜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딸들입니다. 부모를 잘 모르고 철이 없는 아이일지라도 부모가 그들에게도 칼을 쥐어주고 사과를 깎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왜? 다 알아버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입니다.

내가 제일 축지를 무섭게 한 때가 70일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을 때입니다. 그때 경기도 광주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장소 금방 갔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내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들이 예배를 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진정!
정말로 진정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도 정말 진정!
나는 가끔 가식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갈까? 하나님께 혼납니다. 정말 뜨끔하게 혼납니다. 아주 무언중에 뜨끔하게 혼내십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말을 전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원수를 사랑해 온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원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원수가 있었는데, 원수를 사랑하였노라! 왜? 나에게는 해할 수 있는 지능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원수를 해할 수 있는 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까지 빼오는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금방 들통내 버린다고 했습니다. "네, 했다가는 내가 금방 들통내

버리고 말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통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눈만 감아 주면 하겠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를 있었는지 압니까? 이 가운데도 나와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가 다 압니다. 나를 이단시하고 막고, 캠퍼스에서도 막고, 직장에서도 막고 그랬던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 자는 아주 원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놔두었기 때문에 그렇지 칼 쓸 줄 알겠다, 머리 단단하겠다, 머리 쓸 줄 알겠다, 밤중 길 잘 걷겠다, 차보다 빨리 사라지겠다, 총탄 같은 놈이고 비호같은 놈인데 어떤 놈이 한 줄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놈이 안 할 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주제도 못 되면서 원수 사랑했다 소리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통내면 끝납니다. 사람에게만 들통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통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사람을 해하면 내가 들통낸다. 사람은 못 찾는다. 그러나 내가 들통낸다.”

“아이고, 하나님의 눈을 내가 속일 수 없나이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살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인이 박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몽둥이찜질하지 않고, 해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해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나를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아들이라구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라고 해서 놔두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놔두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잔소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꾸짖고, 더 신경 쓰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사랑하기 때문에 놔둬보십시오. 있는 집에서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냥 놔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못되게 기르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리원칙으로 기르십니다. 그것 때문에 삽니다. 내가 안 망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내가 다른 길로 못 가게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생명의 보험을 들어놨고,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딴 길로 못 가게 보험을 들어놔서 너희들이 나를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놔서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아예 종교법인으로 만들어서 말뚝을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아 무슨 종교 법인을 해 놔? 선생님이 다른 것으로 변동이 있겠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이단시함을 당하고서 "아이구, 여기서 실패했으면 저 사람들에게 가야지. 소망을 가졌던 사람에게 안 됐으면 저 사람에게라도 가야지."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개자식취급을 하고, 창녀취급을 하는 이방인의 땅인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한이 맺혔습니다.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들이(유대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죽도록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이방에서 뿌리를 내리자. 그 땅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씨를 딴 데 가서라도 뿌려야겠다. 아깝다.' 하고 그렇게 이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방에 가서 첫 번째, 이방에 가서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역사적인 일기를 쓰는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쓰려면 한

120장은 써야 됩니다. 그러나 다 못 씁니다. 여러분들은 일기장에 한 5-6줄 정도 쓰고 끝나지요?

그 중에서 특별한 것만 쓰는 것입니다. 내가 일기를 쓸 때 옆에서 제자들이 봅니다. 나야 꺼림 없이 씁니다. 내가 특별한 것만 쓰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다면 괜찮지요. 거기에 쓰면 바로 책으로 옮겨지는 것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바가지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런 물 잔이 아니라 흔히 옛날 나무바가지 같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목도 타셨겠지만 나무바가지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일부로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혼자 생각해서 움직이는 자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무를 멋있게 짜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안무입니다.

안무는 건축법으로 표현하면 설계입니다. 설계가 멋있어야 되듯 안무가 멋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훌쩍훌쩍 마시고 “야~ 물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 줄여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고 “아 정말 물맛이 더럽게 없네.”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 물 맛있다. 감사합니다. 물 잘 먹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물이 있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뒷이야기가 뭔고 하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

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옛날 우리의 큰 조상인 야곱이 먹던 물도 마시려고 이렇게 다시 우물을 파서 수리해서 쓰는데 이 물을 마셔도 목이 타는데,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고 야곱은 저 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들어갈까말까 할 정도가 아닙니까? 혹시 신약시대의 예수님 제자라면 몰라도 야곱은 저 구약의 종들 중에서 종들의 반장 정도인 시범자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샘을 팠는데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먹었고, 양 치던 샘인데 “그 물을 먹어도 목이 마른데, 아니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으하하하하하--” 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식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누가 왔습니다.”

“아 그렇냐?” 하고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참 바쁜데 이렇게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바쁜데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서,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지금 때가 이 때야. 너 나, 누구인지 모르지?’ 그럽니다. 꼭 그럽니다. 거진 나는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속에서 내 영이 그럽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가 검지를 내 놓으면 나는 엄지를 내 놓습니다. 그가 엄지를 내 놓으면 나는 팔뚝을 내 놓습니다. 그가 팔뚝을 내 놓으면 나는 몸뚱이를 내 놓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했을 때 아마 예수

님은 많이 비웃으시며 “저 여자가 나를 깨닫고 나면 정말 치마 뒤집어쓰고 뒤로 발딱 넘어지는 꼴을 보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PR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감의 칼을 뽑아 쓰셨습니다.

“내가 그 물을 줄 테니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했습니다.

여인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할 때라고 했지요?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영감의 칼로 찔렀습니다.

“왜 남편이 없습니까? 5명이나 있는데 쓸 만한 사람이 없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인이여! 남자가 다섯인데 쓸만한 자가 없지?”

그 여자는 남편 5명을 데리고 살았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찔끔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야곱보다 크냐고 합니까?”

“당신은 내가 보기에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음, 칼을 꼽자’ 그러셨습니다.

영감의 칼! 여러분들도 전도하려면 그만큼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데려다 놓고,

“너 애인 둘 있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인이 둘이나 있다구요?”

“애인 둘 있지? 버리면 내가 진리 말씀을 주지.”

“아 정말 나 헷갈려요.”

‘이상하다. 성경을 다시 보자. 아, 애인이 5명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애인이 5명 있지? 그런데 맛탱이가 없지? 그 애인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말씀을 줄께.”

“내게 할 말이 이 성경에 들어 있어요?”

“여기 있어 봐요... 나 화장실에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하나님, 틀렸나 봐요. 쟤는 애인이 없나보네요. 그런데 애인이 있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화장실에 가서 문 잠가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와라.” 그러실 것입니다. (웃음)

“내가 영감을 줄 것이니, 걔는 애인이 없는 애다.”

“걔는 지금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계속 끙끙거리고 있어.”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이고 실력 대 실력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으면 기도를 많이 해놓았을 껄! 껄껄껄.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인생을 멋있게 살다가 올 껄!

정말로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 남자랑 뒹굴어대다 왔을까.

아, 아쉽다. 부끄럽구나.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집어 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물어 흔드는 이빨은 없습니다.

그래도 잇몸으로 흔들어도 꽤 한참 가니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따라오도록! 믿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정말 만날 줄 알았다면 내가 세상살이를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기도 많이 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천리를 내다보며 그를 믿고 외쳐서 하루에 3천명이 돌아오게 만들고, 3만 명씩 돌아오게 할 것인데!

예수님 때 3천 명 돌아오게 했으면 지금은 하루에 3만 명씩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3만 명이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르쳐 줄까요?

“너희들, 총동원해봐! 하루에 3만 명이 돌아오는 것은 일도 아니여!”

내가 전도한 프로수로 볼 때 365명만 외쳐도 하루에 3만 명이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365일 동안 만 명이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천 명을 전도한 것은 완전히 돌아오게 한 사람이 아닙니

다. “일단 한번 들어보자.” 했던 사람이 3천명이 왔습니다. 베드로의 말만 들었으면 거의 전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 정도이지, 꼭 3천명이 전도되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를 잘 쳐다봐요. 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상을 볼 줄 안다면 나를 잘 보십시오.

아까 저기 날 망에서, 전망대에서 내가 대둔산에서 기도했던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망원경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고, 너는 이 망원경으로 봐봐.”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눈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요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고 눈도 붓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안질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계속 기도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 눈으로 보는 만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안 보이냐? 그렇게 정말로 말이 안 통하냐? 나는 환히 보이는데,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냐? 망원경으로 대서 보아라. 보이나. 안 보이나.”

“참으로 있습니다.”

“아, 저기인데도 못 봐? 이런 흐린 눈이 더 흐리기 전에 너희들 부지런히 와라. 내가 너희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그 동안 크다보니까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제 온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

이 여자에 대한 것을 들어봅시다. 이 여자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고서 탁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하면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 가서 소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갖다놓고 절을 하면 신이 듣는다고 하고 복을 준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에 내 옆에 주님 와 말씀하시길
내 손에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노래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두고 영감을 받고 지은 노래입니다. 여인이 깨닫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했구나.'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참 훌륭한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자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다고 예수님이 짚어냈으니, 솔직히 말해서 남자 5명 데리고 살다시피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 혼자 살 몸이에요?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이것을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지요? 어머니, 황 권사님?

그 여자가 그렇게 훌륭했습니다. 여자가 훌륭한가 아닌가는 그런 것을 보면 압니다. 그게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참 훌륭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딪혔습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물음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괜히 잘못 물어본다면 인격의 낙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훌륭한 것을 물어봤지요? 여러분들은 감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종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들은 풍월로 종교심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싸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막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했고, 이들은 산에 가서 굽신 거리면서 "신이여! 많이 잡수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둘 다 맞냐? 완전히 하나가 판이하게 틀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둘 다 맞다.’ 이것을 분별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일어남이니라.”

이들이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고, 너희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 했습니다.

예배(禮拜)라는 것이 뭔고 하니, 예도 예(禮)에, 절 배(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절을 하고 했습니다.

예배!

“예배드린다.” 해야 합니다. “예배 본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 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린다.” 고 해야 합니다.

“나 지금 예배 보러 간다.”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배 보러 가게?

“예배드리러 갑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가십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드리러 가십니다.” 하면 말이 되지요? 이와 같이 말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지니라. 너희는 모르고 예배한다.”

유대인들, 모르고 예배했지요? 말씀을 몰랐지요? 이방인들도 모르고 예배했지요?

“모르고 예배하고 있느니라. 우리는 알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알고 예배하고 있고, 저들은 모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고. 이방!

여러분들에게 누가 “산에 가서 목탁을 치면서 비는 것이 맞습니까? 기독교가 맞습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답할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지니라. 우리는 알고 예배해야 하는데 지금은 알고 예배해야 될 때다.” 그렇게 증거해요! 알겠어요?

지금은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4대 교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예배한다!”

“2000년대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것은 안 된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 전혀 없음”

그러면 “야, 어떻게 당돌하게 담대하다. 뭔가 알겠다.”

그런 확실한 진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람을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후반전 경기 때에 더 볼만하게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뼈대가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담대합니까?

힘이 세야 담대하다, 뼈가 있어야 담대하다, 담력이 있어야 담대하다, 등치가 있어야 담대하다, 대갈통이 커야 담대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알면 담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길이 저기로 가는 길인 것을 알면, “이 길로 가면 찻길이 없다. 연결된 찻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면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없다. 거기 없다. 뭐 하러 가냐? 산이 끊어졌다. 푹 꺼졌다.” 하고 담대하

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아냐?”
“안다. 아니까.”

어떤 사람은 등치가 커 보이는데,
“이 너머에 찻길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는데요?”
“정말 있는 것입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아는 놈이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 담대와 더불어 심장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길에 대둔산에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귀신도 안 나오고, 적들도 안 나오고, 해할 자도 안 나오고, 해할 나쁜 남자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어.” 하고 확실하게 예언했다면 밤새도록 담대하겠습니까, 안 담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갔을 때는 ‘관광지에서 어떤 놈이 건드리지 않을까?’ 하고 늘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락만 해도 “아 정말 무서워. 주여!” 하고, “아, 귀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는 만득이 아니야.” 하면서 가면 귀신이 “만득아~ 네가 사도냐? 개도다.” 이런 소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들립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단계에서 들어가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계 이야기를 앞으로 해주겠지만.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으로 진실로 말하는데, 저들은 모르고 예배하고! 모르고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동안 모르고 예배했지요? 이방에 있던 사람들도 모르고 예배했지요?

불교에서 온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모르고 예배했지요? 기독교에서

온 사람도 손을 들어보십시오. 모르고 예배했지요?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잊지 못할 내 형제가 뼈에 닿네. 살도 닿네.”

나도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방에서도 꽤 많이 왔습니다.

“이방도 넓구먼, 큰 방이구먼.”

자, 다시 볼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고 예배했는데, 지금은 알지요?

메시아의 강림도 알지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알지요?

불심판하는 내용도 알지요?

선악과도 알지요?

“선악과가 없는 사람, 손을 들어봐. 선실과 없는 사람, 손들어 봐!”

여자들 보십시오. 남자들이 손을 안 듭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선실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웃음)

“에이, 중성자들아.”

몇 명은 손을 들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선실과 없는 사람, 손들어 봐.

다른 데에서는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모를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끼리만 은어가 통합니다.하나님의 세계에도 은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저 영동에서 마리아 권사님 댁에서 2층에서 살 때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옵니까?”

“이사 왔기 때문에 옵니다.”

“이사 와서 오는 사람도 한두 명이지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교인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금 교인들이 좀 있지요.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이 옵니까? 제재를 좀 해 주세요.”

지방 사람들이 답답하고 내가 보고 싶으니까 매일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

다가 제자들이 그 권사님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천주교인들처럼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독수리가 되어 마음대로 주물주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리아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내가 아까 창문을 열고 보니까 여기도 생명나무가 더러 있더구먼요. 이 집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어디요?"

"에이, 그것을 모릅니까? 말씀 공부를 다 하면 압니다."

공부하기 전이라 궁금해 했는데, 내가 일부러 말씀을 막 돌렸습니다. 뱅뱅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너무 빨리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말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몰라? 너 생명나무를 달고 다니면서 몰라?"

이러는 것은 푼수 같은 녀석들입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강사입니다. 그게 강사입니까. 그렇게 강사가 강의하면 그런 강의는 개도 안 듣습니다. 인격적인 강의를 해야 합니다.

뱅뱅 돌렸더니 마리아 권사님이 자기 집 정원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복숭아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생명나무구나. 선악과구나.' 이러면서 나름대로 만지면서 좋아하더라구요. (웃음) '주여, 우리집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내가 그것을 쳐다보고 "주여! 저 여자의 귀가 뜨이게 해서 은밀한 중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선악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랬더니, "에이 내 것은 떡이 됐네. 내 것은 떡이 되어 버렸구먼." 하고 내려가더랍니다. 애들이 그 말을 지금까지 합니다.

이래서 신령과 진정, 이제 우리는 알고 합니다.

심판도 알고, 공중휴거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알고서 예배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에덴동산이 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입니다. 에덴동산이 귀한 것이고, 에덴동산 중앙의 생명나무가 귀한 것이고, 선악과도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니 관리를 잘 하십시오. 내가 참고로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위암은 위가 깎이면 옵니다. 특히 위암은 음식물에 의해서 특히 많이 좌우됩니다.

간암은 속을 많이 썩으면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을 많이 썩으면 안 됩니다.

뇌막염도 속을 썩으면 옵니다.

폐암은 피가 더러워지면 옵니다.그것도 음식물과 연관이 큽니다.

자궁암은 더러우면 옵니다. 더러우면 자궁암이 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곳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에서 옵니다. 그리고 더러우면 파리가 오고, 모기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연못에 물을 빼니까 모기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연못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 깨끗지 않으면 모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모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끝 모기가 있을 때입니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齒)를 더럽게 하면 다 썩어서 금방 뭉개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매일 닦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신령>이 뭡니까?

“나, 신령하잖아!”

아니까 신령하잖아요. 잘 맞추니까 신령하지 않습니까.

<진정>이 뭐여? 진정한 말씀을 하잖아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대화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온 지구촌을 쳐다봐도 답답한데, 아마 여기가 제일 좋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하니까.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몇 사람만 데려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아까 내가 볼을 찰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 내가 일부러 그랬다. 애들은 곧 이길 것 같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된 거야."

"맞아요. 저는 눈치챘어요."

이와 같이 속에 있는 이야기는 속을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사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얼마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듯이, 그 엄청난 구름떼가 있어도 몇 명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날 얘기를 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눈을 떠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게 전체를 따다닥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다 풀어 주니까 무엇인가 생각나지요? 정말로 이것저것 푸니까 생각나듯이.

메시아 그가 오면, 메시아(Messiah)는 M자를 쓰지요? S자도 쓰고.

"메시아 그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 준다는데 언제 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언제 온다고 말하겠습니까? 내일모레 온다고 하겠습니까? 다음에 올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왔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언제 옵니까?” 했을 때, 이미 여자가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수 앞을 못 본 것입니다. 인간은 6수이니까.

모든 것을 풀어 줬으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풀어 줬으면 그 철학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언제 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구.. 내가 여기서 더 끌면 시간이 없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내로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만군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을 축복하고 떠나오니, 서운하지만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저 기성은 어디로 갔나...’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노래 속에는 사연이 깊었었나 봅니다.

내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잘될 때는 엄청난 거목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잘되고 형통되며, 이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더 배우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나 믿고 나 보낸 자를 믿을지니, 네가 잘되고 형통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올 것이니 영원히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으리라.

이들에게 인자와 사랑과 공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 비오니 잘되고 형통되며 흑암과 어둠이 아무도 이들을 손대지 말게 해 주시고, 악한 자가 손대지 않게 해 주시고,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해됨과 아픔과 상함과 고통이 없을지어다. 내가 빈 평안이 영원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